

# 공공도서관의 여가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Leisure Program for Public Library

윤 정 기(Jeong-Gey Yoon)\*\*

### < 목 차 >

- |                        |                       |
|------------------------|-----------------------|
| I. 서론                  | 1. 어린이 독서공간           |
| 1. 여가의 개념              | 2. 가족의 여가활용과 여가공간     |
| 2. 여가 공공시설의 필요성        | IV. 공공도서관의 여가프로그램 활성화 |
| II. 여가 공간으로서의 도서관      | 1. 여가프로그램의 필요성        |
| 1. 취미로서의 독서와 도서관       | 2. 여가프로그램의 활성화        |
| 2. 여가공간으로서 근대도서관의 형성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여가의 공공성을 위한 공공도서관 |                       |

### 초 록

여가는 단지 자유시간이 아니고 노동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로 받아들여지도록 공공성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한국의 공공도서관은 근대도서관의 성립 배경처럼 대중들의 여가시설로서 역사성과 공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가를 위한 공공시설의 역할이 강조되어야 한다.

주제어: 공공도서관, 여가프로그램, 여가공간, 공공시설

### ABSTRACT

Leisure is not only free time, It is free affairs so as approve from labour. thus It must be going forward quasi-public. our public library must build up role of public facilities for leisure, because of it has historicity and synchronism of public leisure facilities from the existence of our modern library.

Key Words: Public Library, Leisure Program, Leisure Space, Public Community Facilities

\* 이 연구는 2007년 광주대학교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광주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과 교수(jenggiy@gwangju.ac.kr)

• 접수일: 2007년 10월 25일 • 최초심사일: 2007년 11월 26일 • 최종심사일: 2007년 12월 24일

## I. 서론

도서관법 제 28조에 공공 도서관의 업무는 정보 및 문화, 교육센터로서 수행하여야 할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라고 하였다. 그 조항 중 문화에 관한 항목에서는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라고 하였다.

현대사회에서 노동환경은 노동시간의 단축과 주 5일제 근무 그리고 파트타임제 근무 등 급격히 변화되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이외의 시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공공영역인 공공도서관의 역할은 단지 행사나 전시회 위주 등 소극적인 활동만을 지향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고에서는 여가프로그램을 공공도서관에서 적극적으로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도서관의 여가 공간화와 근대도서관에 이르는 과정 등을 독서라는 매개를 통해 논의하였다. 그리고 문화관광부 주관으로 국민여가 성향을 조사한 문화향수 실태조사 자료와 어린이 도서관 이용현황을 기초로 하여 공공도서관 등의 공공시설을 이용한 여가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또한 공공도서관 여가프로그램의 하나로 가족단위의 여가형태와 나아가서는 사회복지 시설기관 등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복지시설에서 수용하지 못하는 각 계층의 사회계층 프로그램을 여가차원에서 수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 1. 여가의 개념

1924년 국제노동기구(ILO)는 제6회 회의에서 <노동자의 여가 이용시설의 발전에 관한 권고> (제21호)를 채택하였다.<sup>1)</sup> 권고에 따르면 노동자는 여가를 통하여 각자의 능력을 자유롭게 발달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고 여가를 이용하여 다양한 취미를 살릴 수 있으며 특히 누적된 피로를 완화하여 노동에서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sup>2)</sup>

여가의 어원은 '자유스러워지다'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 리세레(licere)에서 유래하여 오늘날 사용하고 있는 영어 레저(leisure)로 발전하였다.<sup>3)</sup> 여가의 관점은 시대적 상황과 가치관에 따라 변해왔고, 여러 가지 관점에서 정의되고 있다

여가가 "업무를 떠나서 각자가 자유롭게 되는 시간"으로 정의되거나, '정규의 업무로부터 떠나 있을 때에 자유로이 할 수 있는 오락이나 일' 등으로 표현한다.<sup>4)</sup> 여가는 단지 업무나 노동을 벗어나 있는 근무의 시간이라는 소극적 차원에서 정의하고 있다.

마가렛 미드<sup>5)</sup>는 "여가의 개념이 종래에는 생산으로부터 자유로운 시간이라는 소극적 의미를 지

1) 여박동, "일본인의 여가의식과 여가문화의 특징에 관한 연구," 일본학회지, 제13집(1993. 2), p.6.

2) 상계서.

3) 박미혜, "현대여가소비문화의 비판적 고찰과 대안모색," 소비문화연구, 제9권, 제2호(2006. 6), p.81.

4) 김문겸, "한국여가문화의 실태와 전망," 환경과 생명, 통권13호(1997. 8), p.85.

니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노동에 의한 정복이라는 차원에서 소비가능한 시간이라는 적극적 의미로 바뀌었다”고 파악한다. 여가는 전자매체와 인쇄매체 그리고 영상매체 발전 등으로 뒷받침되면서 그 상업화 현상이 더욱 가속화 되었다.

특히 여가의 포괄적 정의로서, 기스트(Noel P. Gist)와 페바(S. F. Feva)는 개인이 노동이나 그 밖의 의무적인 일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로이 긴장을 풀며 기분전환을 하고 사회적 성취를 이루며 또한 개인적 발전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 여가를 정의하였다.<sup>6)</sup> 포괄적 정의에서는 여가를 개인이 노동시간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시간을 활용할 수 있고, 사회적 의무에서 벗어나 임의적으로 활동할 수 있으며, 삶의 목적으로서 여가적 삶을 영위하고, 노동의 피로에서 벗어나 에너지를 보충하고 재생산하는 수단으로서 정의하고 있다.

피에르 쌍소는 ‘느리게 산다는 것의 의미’의 저자로서 삶의 여유와 깊이를 느끼기 위해서는 느낌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느낌의 미학을 “한가로이 거닐기, 경청하기, 권태를 느끼기, 꿈꾸기, 기다리기, 마음의 고향을 떠올리기, 글쓰기, 포도주 음미하기, 모데라토 칸타빌레” 등으로 설명하였다.<sup>7)</sup> 이는 노동을 위한 여가가 아닌 자기 삶을 위한 재충전과 가치실현을 위한 여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1963년 국제노동기구의 권고에 따라 서구에서 먼저 실시된 주5일 근무제와 주 40시간 노동시간의 정착은 여가와 삶의 질에 대한 담론을 촉발시켰고, 사회적으로는 여가 이데올로기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sup>8)</sup>

우리나라에서는 2004년부터 주5일 근무제가 점차 확대되었으며, 2005년에는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주 40시간으로 노동시간이 정착되면서 근로자들의 여가시간이 늘어났다. 이를 계기로 우리사회는 일 중심사회인 노동하는 인간을 의미하는 호모 파베르(Homo Faber)시대에서 여가중심사회인 여가를 즐기는 인간을 의미하는 호모루덴스(Homo Ludens)시대로 이동하고 있다.<sup>9)</sup>

## 2. 여가 공공시설의 필요성

주5일제 근무의 확산과 노동시간의 단축 그리고 경제소득의 증가 등으로 여가시간은 늘어나는 추세에 있으나 여전히 여가는 노동과 분리될 수 없고 여가의 상업화로 소비적 여가가 여가의 형태로 자라잡아 가면서 여가소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헌만은 여가소외가 첫째, 기본적으로 생계유지를 위해 자유로운 자기 시간을 갖는 것이 제약되

5) 상계서.

6) 박미혜, 전계서, p.82.

7) 상계서, p.95.

8) 이중하, “문화사회에서 노동과 여가,” 철학과 현상학 연구, 2006, p.148.

9) 박미혜, 전계서, p.79.

고, 둘째, 여가가 단지 생산의 문제에 종속된 수단으로서만의 가치를 지니는 경우, 즉 입사나 승진 시험을 위해 자유시간에 영어나 컴퓨터 공부를 하는 경우, 셋째, 여가시간에 부업을 하는 경우, 넷째, 여가활동이 자본의 논리에 따라 관광상품과 같이 진열된 여가상품을 맹목적으로 소비하는 경우, 다섯째, 여가가 단순히 노동소외로부터 도피나 보상의 의미만을 지닐때라고 하였다.<sup>10)</sup>

이러한 소외된 여가는 한국 여가문화에서도 볼 수 있는데, 공동체적 여가와 대립되는 것으로서 가족끼리의 여가 및 각종 취미활동의 형태인 개별화와 혼자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거나 탐정소설이나 추리소설에 탐닉하면서 개인화되어 가는 여가문화에서 볼 수 있다.<sup>11)</sup>

여가소외는 표준화되고 상품화되며 획일화된 여가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여가소외는 상업화된 여가문화에서 벗어나 여가를 능동적으로 실천하고 자기 나름의 삶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으며 휴식이나 기분전환 그리고 자기개발 등의 기능으로 치유할 수 있다.<sup>12)</sup>

노동사회는 일상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공기와 물 그리고 환경까지도 상품화하여 놓고 마시는 것과 같은 기본적인 생활에조차도 소비를 강제한다. 심지어는 놀이하는 인간인 호모루덴스(Homo Ludens)시대인 여가사회에 이르러서는 노는데에조차도 표준화되고 규격화된 놀이가 성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삼성에버랜드나 롯데월드의 놀이기구 그리고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디즈니랜드 등이 일상적인 놀이를 꿈과 환상으로 이끄는 동력이 되고 있다.

노는데 돈이 들어가면 임금노동에서 면제된 시간은 노동으로 복귀하기 위한 준비시간으로 전환될 뿐이다.<sup>13)</sup> 소비사회로의 이행은 보다 즐거운 놀이가 되기 위해서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도록 촉진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와 구분된 놀이가 사회적으로 가능하도록 조성하여 여가를 단지 자유시간이 아닌 노동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로 받아들여지도록 하고 노는데에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문화관광부에서는 주 40시간 근무제 실시에 따른 [2007 국민 여가활동조사]를 발표하였다.<sup>14)</sup> 발표에 따르면, 주 40시간 근무제 실시 대상자들은 대부분이 생활에 행복감을 느끼고 여가활동이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여가생활에 대해서도 40.7%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소득수준의 증가와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여가시간의 확대로 여가 활용의 유연성이 가능하다는 일반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소득이 낮을수록 TV시청/라디오 청취와 목욕/사우나, 낮잠, 신문/잡지보기 등 소극적인 휴식활동을 하는 반면, 소득이 높을수록 스포츠, 관광, 오락, 취미 등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가족 중심형 여가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도서관은 두 계층이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개개인들의 여가활동을 복합적으로 성취할 수 있

10) 김문겸, 전계서, p.88.

11) 상계서, p.89.

12) 한군자 등, 한국사회문제(서울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06), p.393.

13) 강내희, "문화사회를 위하여," 문화과학, 17(1999. 봄), p.22.

14) 내일신문(2007.6.29).

고, 가족단위별로 소통이 가능하며 공동체적인 여가문화 활동을 펼 수 있는 공공시설 중 하나로서 기능할 수 있다.

## II. 여가 공간으로서 도서관

### 1. 취미로서의 독서와 도서관

서궁의 고려도경을 해제한 선화봉사고려도경 제 19권 민서편에 '고려는 땅이 넓지 못하나, 백성이 매우 많다. 사민(四民)의 업중에 유(儒 선비)를 귀히 여기므로, 그 나라는 글을 알지 못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긴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고구려에선 말먹이꾼도 공부를 하고'(신당서) '고려에서는 하인들도 시를 읊는다'(고려도경)는 기록도 있다.<sup>15)</sup>

문화재청이 최근 보물로 지정 예고한 서울시 노원구 하계동 12 '한글영비'는 조선 중종 때인 1536년 문신 이문건이 부모를 합장하며 만든 것으로 순 한글로 비문이 적혀있다. 이를 두고 홍운표 연세대 교수는 "반포 100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한글이 얼마나 많이 백성들에게 알려지고 사용됐는지를 증명하는 귀중한 유물"이라며 "한글창제 초기의 서체도 알 수 있다"고 했다.<sup>16)</sup>

이러한 일련의 기록들을 보면서 이 나라에서 식지 않은 교육열은 금세기만의 과장된 모습이 아니라 생각어 든다. 겨우 한줄의 글로 한 시대의 흐름을 평가할 수는 없지만, 말먹이꾼과 하인이라는 그 당시로서는 피지배계층의 기록이고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독서는 지배계층의 전유물만은 아니었던 것 같다.

조선시대에 대다수 민중은 절대 빈곤에 처해 있었고 취미생활을 할 물질 토대 또한 찾아보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조선의 잡지 별건곤에서는 민중적 오락이면서 자본주의적 오락의 도구가 된 읽을 거리를 주창하였으며 잡지의 창간정신으로 삼았다.<sup>17)</sup>

근대 초기 조선사회에서 도서관의 역할을 했던 신문종람소는 공동체적 독서를 실시하였고, 서적 관련 기관과 일부 지역민들 그리고 개화기 운동가들이 중심이 되어 지역민들의 독서욕구를 충족시키고 나아가서는 계몽운동의 방편으로 종람소 설립운동을 전개하기도 하였다.<sup>18)</sup>

여하튼 서구 근대화 이전에 독서는 지배계층만이 즐길 수 있었고, 독서자료를 모아두는 서가나 도서관 같은 시설은 당시의 귀족계급과 권력을 상징하였다. 하지만 근대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인쇄술의 발명과 더불어 지식의 보편화와 독서의 대중화가 이루어지면서 도서관과 같은 시설은 일

15) 조선일보(학술.2007.4.3), A23.

16) 조선일보(2007.4.21), A2.

17) 천정환, 근대의 책읽기(서울 : 푸른역사, 2003), p.198.

18) 상계서, p.112.

반대중에게 정보의 보편적 접근권을 부여하는 시설로 정착하게 되었다.

## 2. 여가공간으로서 근대도서관의 형성

선비가 책을 읽는 것은 ‘窮理의 第一’<sup>19)</sup>이었으며 “독서백편의자현(讀書百遍義自見)-책을 백 번 읽으면 그 뜻이 저절로 나타난다”<sup>20)</sup>는 말은 독서의 즐거움과 독서하는 방법을 묘사하고 있다.

플라톤은 [파이드루스]에서 소크라테스의 입을 빌려 “모든 말(로고스)은 일단 씌어지면 여러 장소를 향해 굴러가는데 자기를 이해하는 사람들 사이로 굴러가고, 자기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들 사이로도 굴러가며, 누구에게 말하고 말하지 않아야 하는가를 분별하지 못한다.”고 하였다.<sup>21)</sup> 이 말은 자유로운 독사이면서 자유로운 음독에 비유될 수 있다.

삼국은 모두 시경, 서경, 예기, 춘추, 논어, 맹자 등 경전으로 청소년들을 학습하였고, 교양을 쌓도록 하였다. 경전은 연속기법으로 음독하는 경우 끊어읽기를 하는데 어려움이 많고 해석하려면 끊어읽기를 해야 한다. 경전을 읽으면서 몸을 앞뒤 좌우로 움직이는 것은 음독하면서 리듬속에서 문장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고 쉽게 암기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과학기술의 발달로 출판물이 증가하고 대중교육의 확대로 독서의 대중화가 되면서 많은 책을 동시에 파악해야 하는 근대교육에서 음독은 점차 묵독으로 변화되었다.

우리나라는 서구 열강들의 개입으로 서구 문물을 받아들여 근대화의 물고를 뜨게 되었고 갑오개혁으로 조선 500년간 쌓인 사회적 악폐를 제거하는 서막을 열게 되었다. 그러나 자주적인 근대화와는 거리가 먼 일본의 속국으로 전락하는 치욕의 역사가 되어버렸다.

자주적이고 창의적인 우리만의 문자를 가지고 근대화를 이룰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한 채 36년 간이라는 기나긴 세월을 척박한 식민의 시대로 보내야 했다. 그러나 높은 문맹률에 비해 근대적 성격을 가진 도서관의 수는 급격히 높아지는 기현상이 나타났다.

1920년대 까지 한글 문맹률은 정확한 통계는 없으나 대체로 80%였던 것으로 추정되나 전국적인 문맹퇴치 운동과 교육열의 확산으로 조금씩 낮아졌다. 1930년에는 문맹률(한글)이 77.73%였고, 남자는 63.92%까지 떨어졌다. 1919년 일본어 해독 가능 인구는 전체의 2.5%였으나 1927년에는 5.72%, 1929년에는 7.70%까지 상승하였다. 특히 교육받은 집단에서 일본어 독서가 점차 확산되었다. <sup>22)</sup> 이는 일본의 식민화가 진행될수록 황국신민으로의 편입을 통한 신분상승과 일본어의 해독으로 새로운 정보에 접근하게 되고 식민화가 언어를 통한 사고에 까지 미치게 된 것을 알 수 있다.

높은 문맹률에 비해 도서관의 수는 235개가 설립되었는데, 한일합방 이전인 1901년부터 1910년

19) 이임하 등, 근현대속의 한국(서울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사, 2007), p.322.

20) 상계서, p.323.

21) 로제 샤프티에, 굴리엘모 카발로, 읽는다는 것의 역사, 이종삼 옮김(서울 :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 2006), p.17.

22) 이임하, 전계서, p.326.

까지 5개, 합방이후부터 1945년까지 230개의 공공도서관이 설립되었다.<sup>23)</sup> 일제가 설립한 공공도서관은 순순하게 일제 자본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도서관수가 증가한 데는 향교의 역할이 컸다.

일제는 1910년 한일합방을 기점으로 더욱 거세게 민족말살 정책을 추진하였다. 선각자들이 개화에 추진했던 신교육운동, 언론사를 중심으로 한 출판운동, 도서관 설립을 통한 계몽운동 등을 탄압하고 무력화 시키면서 식민사관을 주입하려는 교화 사상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향교를 대중학습의 장으로 전환하여 계몽운동을 무력화시키면서 일반 대중속으로 식민사관을 주입시켜 나갔다.

향교는 지방에 있는 학교라는 의미로 향학이라고도 하였다. 향교는 고려시대부터 각지에 보급된 지방의 교육기관으로 성균관과 같이 先聖仙賢을 제사하는 임무를 가지는 동시에 지방의 유생들을 모아 강학하는 교육기능을 가지고 있었다.<sup>24)</sup>

문화정치시기인 1921년부터 각 지방에 향교재산을 예산으로 한 공공도서관이 주로 지방 행정기관의 장인 군수들에 의해 설립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해서 일제시 사립도서관의 대부분이 향교재산으로 설치되었다.<sup>25)</sup>

향교재산으로 설립한 최초의 향교도서관은 1921년 10월에 개관한 함흥도서관이었다. 1939년 전주부립도서관을 끝으로 19년 동안에 전국에 48개관이 설립되었는데 이는 동일기간에 설립된 총 도서관수 188개중 25.5%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일 예산으로 가장 많이 설립된 시설이었다. 일제는 향교 시설을 이용하여 유림을 교화에 동참시켜 구국차원의 민족계몽활동을 저지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었다.<sup>26)</sup>

1919년 공립도서관의 초기 이용객은 머슴시켜 장죽내어 와서 산보삼아 도서관에 와서는, 도서관에서 조차 낭송하여 책을 읽던 양반들었는데, 도서관에서 독서하는 모습은 시골 사람이 서울에 와서 꼭 찾아야 할 장소로 도서관을 소개할 정도로 낮은 풍경이었다.<sup>27)</sup>

삼국시대부터 개화기 근대도서관이 성립되기까지 과정에서 독서자료나 독서공간은 그 시대 지배계층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물론 일반 평민의 자제를 위한 공간도 있었지만 극소수에 불과하고 주로 계급통치의 이데올로기적 수단으로 활용하였다.

갑오개혁으로 새로운 사회체계가 이루어지면서 일반 대중에게 정보나 지식의 보편적 접근권을 부여하는 근대도서관이 형성되게 되었다. 근대도서관의 형성에 영향을 끼친 사회적 요인으로는 대체로 서구열강과의 지식을 통한 문화 교류와 계몽운동 그리고 신 교육사상과 출판활동 등을 들 수 있다.

23) 김남석, 일제하 공공도서관의 사회교육활동(대구 : 계명대학교출판부, 1991), p.56.

24) 김남석, "일제시대 향교재산과 공공도서관에 관한 연구," 도서관학집, 제16권(1989), pp.159-190.

25) 상계서.

26) 상계서.

27) 천정환, 전계서, p.124.

### Ⅲ. 여가의 공공성을 위한 공공도서관

공공재란 특정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데 소요되는 총비용이 이를 소비하는 소비자의 수와는 독립적인 재화나 서비스를 말한다.<sup>28)</sup> 공공도서관은 일반적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면서 일반 대중들에게 정보접근권을 보편적으로 부여하고 학교교육을 완성하는 공익기관으로서 공공재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여가공간으로서 가능한 공공도서관은 여가관련 실태조사에서 조사항목인 독서와 주로 관련이 있지만, 적극적이고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조건이 된다.

#### 1. 어린이 독서공간

광주광역시에는 규모는 다르나 10여개의 공공도서관이 있다. 그 중 3개의 공공도서관을 선정하여 2003, 2004년도 어린이 이용실태를 조사하였는데 다음과 같다.

구분	관중		M도서관		S-1도서관		S-2도서관	
	2003	2004	2003	2004	2003	2004	2003	2004
장서수	215,153 20,301 5,243	231,483 25,825 5,554	129,067 2,356 6,091	141,418 2,471 6,868	65,101 505 5,057	74,789 699 5,417		
입관인원	499,449	463,872	311,092	381,728	266,147	358,474		
자료열람	278,663명 393,506권	342,851명 485,552권	132,521명 262,695권	157,815명 277,521권	145,633명 217,240권	51,416명 104,911권		
1일 평균 이용자	1,676명	1,536명	1,040명	1,264명	890명	1,187명		

장서수는 일반도서수와 비 도서자료수 그리고 특화자료(향토자료, 미술자료)수 현황이다. 장서수는 예산증가로 자연증가하고 있다. S-2도서관에서 2003년도와 2004년도를 비교해 보면 장서수와 입관인원은 증가하고 있으나 자료열람인원과 권수는 현격하게 감소추세로 나타나고 있다. 감소하는 요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인접지역에 중등학교 시설이 부족하여 타 학군으로 이동이 많고, 이용자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장서수가 부족하여 자료를 열람하는데 한계를 드러낸 것 등으로 볼 수 있다.

M도서관의 어린이실 이용현황은 다음과 같다.

28) 김창남 등, 대중문화와 문화산업(서울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06), p.95.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12월6일현재)
관내열람인원	71,178명	83,577명	85,227명
관내열람권수	166,732권	191,689권	187,116권
관외 대출인원	56,578명	66,667명	72,602명
관외대출권수	131,335권	159,453권	159,470권

M도서관 어린이실은 이용자수와 열람권수가 대체로 증가추세에 있다. M도서관 전체 이용현황에서 어린이 이용현황이 차지하는 비율은 열람인원은 2003년과 2004년에 25%와 24% 정도 되지만, 열람권수는 42%와 55%로 나타나고 있다. 즉 어린이 이용자수에 비해 열람권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관외 대출현황은 인원수가 40%와 46%로 나타나고, 대출권수는 48%와 53%로 나타나고 있다. 즉, 어린이 대출 인원수가 차지하는 비율보다 대출권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전체적으로 어린이실 이용자와 이용자료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도서관이용자에서 어린이 이용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특히 열람권수와 대출권수는 이용인원에 비해 월등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2006년도 광주 학생교육문화회관과 일곡도서관 그리고 시립도서관 이용현황은 다음과 같다.

구분 \ 관종	시립(관외대출)	학생교육문화회관	일곡
총 열람자수	621,025	521,544	188,088
총 대출권수	1,329,924	761,450	316,831
어린이열람자수	315,822	424,551	118,014
어린이대출권수	700,319	612,887	176,562

시립도서관 관외대출의 경우 어린이 이용자는 열람자수나 대출권수에서 50%대를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학생교육문화회관의 경우에 어린이실 이용현황은 열람자수와 대출권수 모두 80%대를 상회할 정도로 어린이의 이용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일곡도서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어린이실 이용자가 열람자수와 대출권수에서 50%~60%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도서관의 이용현황에서 어린이 이용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서 어린이 이용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어린이실을 확장하거나 서가의 높이를 조절하거나 바닥의 질도 유연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유아용실을 어린이실과 분리하여 두 계층 모두 하나의 인격체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도서관내에 한정된 고객 서비스 차원의 하나이다. 하지만 여가사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공공도서관을 여가를 위한 공공재로서 받아들이고 어린이를 중심으로 하는 가족

간의 네트워크를 고려한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 2. 가족의 여가활용과 여가공간

문화관광부와 한국문화 관광 정책연구원에서는 15세 이상의 전국민을 모집단으로 한[2006 문화향수실태조사]를 발표하였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여가활동은 여가시간에 '텔레비전을 보거나 쉰다'는 응답이 평일의 43.7%, 주말·휴일의 29.0%로 가장 많았다.

평일에는 텔레비전 보기(25.6%), 집에서 쉰다/낮잠(18.1%), 인터넷/게임(8.9%), 산책/스포츠(8.8%), 신문/잡지보기(6.8%), 친구만나기/모임참가(5.6%), 독서(3.5%) 등의 순서로 여가시간을 활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말과 휴일에는 텔레비전 보기(15.9%), 집에서 쉰다/낮잠(13.1%), 가족과 대화/외식(10.0%), 산책/스포츠(8.3%), 친구만나기/모임참가(7.9%), 등산/낚시(6.3%) 등의 순서로 여가시간을 활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평일에 희망하는 여가활동으로는 산책/스포츠(13.4%), 친구만나기/모임참가(10.5%), 여행(9.6%), 예술감상(8.8%), 텔레비전 보기(7.3%), 가족과 대화/외식(6.9%), 집에서 쉰다/낮잠(6.7%)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주말·휴일에 희망하는 여가활동은 여행(24.0%), 등산/낚시(10.3%), 쇼핑(10.0%), 가족과 대화/외식(9.9%), 친구만나기/모임참가(8.7%), 예술감상(7.6%), 산책/스포츠(7.5%)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여가시간의 활용과 희망하는 여가활동에서 가장 커다란 차이는 희망하는 여가활동으로 여행이 최우선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는 순위에 차이는 있지만, 형태는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는 여가활동의 걸림돌로서 평일과 주말/휴일에 관계없이 시간과 경제적 부담 그리고 관련시설의 부족과 프로그램 부족 등으로 나타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시간과 경제적인 부족만 해소되면 여행을 최우선으로 하고 싶다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나머지 형태에 있어서는 여가활동의 걸림돌에 관계없이 희망하는 여가활동과 비슷한 양상의 띠고 있다. 이는 경제나 시간 부족 등에 관계없이 여가활용과 희망하는 여가활동의 형태는 평일과 주말/휴일에 여가시간을 활용하는 형태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따라서 일부 형태 즉, 텔레비전 보기, 집에서 쉰다/낮잠, 산책/스포츠, 신문/잡지 보기, 가족과 대화/외식, 독서 등을 포괄적으로 묶으면 일정한 장소에서 가족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여가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 IV. 공공도서관의 여가프로그램 활성화

### 1. 여가프로그램의 필요성

성장주의 경제정책을 추구했던 한국에서도 여가라는 새로운 사회를 갈망하고 성장의 과실을 담보로 해서 여가산업 또한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사람은 일상적인 사회생활 속에서 조직에 귀속되어 계획된 프로그램에 따라 순응하고 성장하며 발전한다. 한편으로는 이러한 업무 형태를 떠나서 스스로의 계획을 가지고 일상에서 탈출하고자 하는 욕구해소 방안으로 여가를 필요로 하고 실업자가 되어 강제된 여가를 어쩔 수 없이 생활화하기도 한다.

이은희, 남수정의 연구<sup>29)</sup>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여가활동을 수행하는 데에 있어 경제제약 또는 시간제약 보다는 여가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여가를 효율적으로 보내는 능력의 부재에 대한 인지정도가 큰 것이라고 하였다.

김맹선과 이문주의 연구<sup>30)</sup>에서는 전업주부의 여가활동이 텔레비전 시청과 인터넷 사용, 수면, 잡담, 음주, 문화활동 등 소극적이고 지나치게 실내 여가활동에 치우친 것으로 조사되었다.

허은정은 그의 연구<sup>31)</sup>에서 책이나 음반, 전자오락, 컴퓨터 등의 수동적 레저유형에 있어서는 소비자의 소득보다는 자아존중감과 같은 심리적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업 경영자들에게 요구하였다.

홍성희는 그의 연구<sup>32)</sup>에서 한 복지관내에서 여가프로그램을 다양화할 수 없다고 하면서 다른 유형의 공공시설과의 연계성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중년층의 여가능력을 개발하고 여가 경험을 사회화시켜 노인층까지 지속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공급되어야 한다면서 이 역시 지역 내의 다른 공공시설과 연계하여 서로 프로그램을 보완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정책적으로 공공시설의 설립과 운영시 지역성과 주민특성을 고려하며 공공시설간의 연계성을 높여 복지정책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대한 뒷받침으로 박옥화는 공공도서관 고령 이용자에 대한 연구<sup>33)</sup>에서 고령자들은 어떤 곳보다 도서관에서 보내는 시간이 여가를 의미 있게 보내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용목적으로 조사대상자 중 81.1%가 신문이나 잡지를 보는 것으로 조사하였다.

29) 이은희, 남수정, "청소년 소비자의 여가태도와 여가제약이 여가활동 선호와 참여에 미치는 영향," 소비문화연구, 제8권, 제3호(2005. 9), pp.141-164.

30) 김맹선, 이문주, "전업주부의 여가형태에 따른 만족도 연구," 소비문화연구, 제8권, 제3호(2005. 9), pp.63-76.

31) 허은정, "레저지출 및 레저활동 참여도의 관련요인 분석," 소비문화연구, 제9권, 제3호(2006. 9), pp.91-113.

32) 홍성희, "중노년기 여가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공공시설의 여가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제38권 5호(2000), pp.121-136.

33) 박옥화, "공공도서관 고령 이용자에 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8권, 제1호(2007. 3), pp.375-396.

## 2. 여가프로그램의 활성화

여가산업이 급증하는 사회현상속에서 어떤 여가를 수용할 것인가는 개인이 선택해야 하지만, 선택 이후로는 자신의 자발성이나 자의성과는 관계없이 계획된 프로그램을 따를 수 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가족구성원들은 각자에게 주어진 여건과 상황에 따라 여가 시간과 공간을 달리한다. 따라서 여가를 즐기는 데 있어서 비용을 최소화하고 가족간의 소통이 가능하며 일정한 공간내에서 스스로의 계획을 실천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사적이익이 추구되는 여행이나 쇼핑이외의 여가 형태에 공공성을 부여하여 돈이 들어가는 놀이에 제동을 걸 필요가 있으며 공공성이 갖는 대표적인 기관으로 공원, 산책로,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을 여가를 위한 공공기관으로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가족을 움직이는 동력은 대체로 주부와 자녀와 노인층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공공도서관이라는 공공재를 활용하여 가족단위를 중심으로 산책과 오락과 운동과 독서 그리고 디지털미디어의 접근이라는 종합적 여가를 수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성화해야 한다.

그리고 가족단위 여가의 핵심에는 자녀들이 자리하고 있다. 자녀가 아동이나 청소년기를 지나면 독립적으로 활동한다. 아동기와 청소년기 일부는 가족단위 여가를 통하여 가족간 소통을 유지하고 사회나 국가에 있어서 근간이 되는 가족의 일원으로서의 소중함과 책임감 그리고 끈끈한 연대의식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가족단위 여가형태의 하나로 아동이 중심이 되어 협력적으로 독서를 하고, 가족 단위로 산책과 신문/잡지보기와 가족간의 대화를 하면서 피에르 상소가 말하는 느리게 사는 맛을 느낄 수 있는 공공성이 갖는 기관으로서 공공도서관을 구현해야 한다.

또 다른 차원에서 도서관 중심의 여가프로그램으로 공공기관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다. 여가의 양호한 사용을 위한 시설로는 사회적으로 공공적이고 복리증진 차원에서 공원이나 체육시설 등과 같은 공공시설을 활용하는 여가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노동소외로부터 벗어나 가족구성원들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가족시설로서의 박물관이나 미술관 등과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도서관에서 전시회 과정과 작품을 프리젠테이션으로 설명하고 도록 등의 편집이나 전시로 문화적 평등을 추구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은 노동자 자신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보편적 가치를 학습할 수 있는 다양한 학습프로그램을 접하는 기회가 된다.

공공도서관을 이용한 여가 프로그램에는 공공시설인 일반복지시설과 노인복지관, 미혼모복지관 등의 복지관 같은 공공시설들과의 네트워크가 포함될 수 있다. 이들 시설과의 연계로 복지시설에서 부족한 프로그램을 보완하거나 위탁교육 등을 하여 사회적 공간과 인적 자원 그리고 시설 등의 경제성을 높여야 한다.

전업주부와 노인계층의 여가도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한국적 현실에서 소득의 양극화로 사회갈등 요소가 나타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핵가족화와 자녀수의 감소 그리고 생활의 전자화가 진행되면서 주부에게 여가시간이 증대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고령화 사회를 넘어 고령 사회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노인계층을 위한 여가프로그램의 다양화와 공간의 필요도 절실한 상황에 처해있다.

전업주부나 노인계층에게 공공도서관의 공간은 본인이 평생에 걸쳐 습득한 전문성을 사회에 되돌려 줄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공공도서관 자체 교육 프로그램이나 외부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주최서비스 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도서관 중심으로 일정한 토지를 경작하여 노림의 여가를 실천하도록 해야 한다.

어린이나 청소년기에는 성장과정에서 여가산업에서 주어지는 특정한 여가 프로그램을 제외하고는 여가의 생활화를 실천할 공간의 확보가 미흡하기 때문에 공공도서관과 같은 공공시설을 통하여 산책과 가족단위 소통 그리고 운동 등 여가 행태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공공도서관은 일정한 시설과 서비스 대상 그리고 인적 자원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문화기획으로 다양한 계층의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소규모의 청소년 음악제나 그리기 축제 그리고 도서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지식 찾기 등 문화기획도 할 수 있다.

공공도서관과 같은 공공시설을 이용한 여가 활동에서는 소비성향이 강조되기 보다는 스스로의 계획으로 일상에서 일탈하는 욕구해소가 중심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시간보내기 내지는 세월보내기라는 소극적 여가에서 구체적인 여가 프로그램에 따른 적극적 여가로의 전환이 필요하기 때문에 문화기획 등의 도입이 시급하다 할 것이다.

## V. 결론 및 제언

여가는 노동사회에서 사회구성원이 적극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시간이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여가도 표준화되고 규격화되어 노는 데에도 비용이 필요하게 되었다. 결국 임금노동에서 면제된 시간이 노동으로 복귀하는 준비시간으로 전환되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여가는 단지 자유시간이 아닌 노동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로 받아들여지도록 공공성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한국의 공공도서관은 근대도서관의 성립 배경처럼 대중들의 여가시설로서 역사성과 공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가를 위한 공공시설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

공공도서관은 지역사회 문화시설로서 이용자들간에 비 배제성과 비 경합성이 존재하는 공공재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여행이나 연극 그리고 음악 등 고급문화를 접하는데 많은 비용이 예상되는 여가를 제외하면 공공시설 중심의 여가사회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공공도서관에서 어린이의 이용율은 대단히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한편으로 도서관이 주는 엄숙주의는 독서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독서 수단이 되는 텍스트는 정전(canon)위주로 짜여져서 이용자들은 도서관 이데올로기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는 지역 여가 공간으로서 커다란 제약이 되고 있다. 이제는 엄숙주의에서 벗어나 다양한 디지털 자료와 영상자료 그리고 컴퓨터 게임과 독서퀴즈 등 프로그램의 다양화로 어린이를 중심으로 한 가족단위의 소통의 장소로도 기능해야 한다.

또한 공공도서관은 주위환경을 고려하여 사색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대중문화 전시회 등 복합적인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청소년 문화 활동 등을 활성화하여 성인으로 성장한 이후에도 청소년들이 도서관을 이용하는데 사회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업주부나 노인층을 위한 여가 프로그램은 어린이 이용자의 도서관 이용시간과 연계하여 친족간에 또는 이웃간에 함께하는 시간으로 활용해야 한다.

공공도서관은 특히 사회복지시설과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기초생활 대상자들을 위한 각종 자격증 취득 교육을 위한 공간이나 교육의 실시를 제공하고, 사회복지시설에서 실시하는 미혼모 등을 위한 사회적 교육 프로그램을 위해서 교육과 공간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 참 고 문 헌

- 강내희. “문화사회를 위하여.” 문화과학, 17(1999. 봄), pp.13-30.
- 김남석. 일제하 공공도서관의 사회교육활동. 대구 : 계명대학교출판부, 1991.
- 김남석. “ 일제시대 향교재산과 공공도서관에 관한 연구.” 도서관학집, 제16권(1989), pp.159-190.
- 김맹선, 이문주. “전업주부의 여가형태에 따른 만족도 연구.” 소비문화연구, 제8권, 제3호(2005. 9), pp.63-76.
- 김문경, “한국여가문화의 실태와 전망.” 환경과 생명, 통권13호(1997. 8), p.84-93.
- 김창남 등. 대중문화와 문화산업. 서울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06.
- 내일신문. 2007. 6. 29.
- 로제 샤프티에, 굴리엘모 카발로. 읽는다는 것의 역사. 이종삼 옮김. 서울 :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 2006.
- 박미혜. “현대여가소비문화의 비판적 고찰과 대안모색.” 소비문화연구, 제9권, 제2호(2006. 6), pp.79-100.
- 박옥화. “공공도서관 고령 이용자에 대한 연구.” 한국도서관 정보학회,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8권, 제1호(2007. 3), pp.375-396.
- 여박동. “일본인의 여가의식과 여가문화의 특징에 관한 연구.” 일본학회지, 제13집(1993. 2), pp.1-22.

- 이은희, 남수정. “청소년 소비자의 여가태도와 여가계약이 여가활동 선호와 참여에 미치는 영향.”  
소비문화연구, 제8권, 제3호(2005. 9), pp.141-164.
- 이입하 등. 근현대속의 한국. 서울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사, 2007.
- 이중하. “문화사회에서 노동과 여가.” 철학과 현상학 연구, 2006, p.147-172.
- 조선일보. 2007. 4. 21.
- 천정환. 근대의 책읽기. 서울 : 푸른역사, 2003.
- 한균자 등. 한국사회문제. 서울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06.
- 허은정. “레저지출 및 레저활동 참여도의 관련요인 분석.” 소비문화연구, 제9권, 제3호(2006. 9),  
pp.91-113.
- 홍성희. “중노년기 여가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공공시설의 여가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대한  
가정학회지, 제38권, 5호(2000), pp.121-136.

